

제1장 과제물작성의 의의

과제물은 과제에 대하여 자신의 학습활동을 효과적으로 정리한 결과를 전달하는 데 주요한 목적이 있다. 이 때문에 가능한 과제물을 명료하고 논리적으로 서술하며 전체 내용을 체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읽는 사람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것을 명료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전달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하는 일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항상 요구되는 일이다. 마찬가지로 과제물 역시 학습활동 내용을 논리정연하게 정리하여 상대방에게 이해하기 편리하게 편집하여 전달할 필요가 있다. 대학에서 학점을 잘 받는다든지 또는 직장에서 상사에게 칭찬을 받는 경우가 바로 형식은 쉽고 내용은 창의적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읽는 사람이 제출자의 생각이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논리가 요구된다. 또한 대학에서 우수한 학점 취득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졸업논문을 잘 작성하기 위한 전 단계로의 의미도 매우 중요하다. 졸업논문 역시 기본적으로 그 작성방식이 과제물과 다르지 않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그 내용과 분량에 있다. 즉, 과제물을 교과서에 기술된 일반화된 이론이나 특수한 목적을 위한 간략한 고찰이라면 논문은 내용상의 독창성을 가지며 많은 참고문헌의 도움을 받아 분량이 좀 더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제물을 작성할 때 나름대로 논문 구성의 형식과 독창성을 갖추는 습성을 갖다보면 졸업논문을 쓰는 데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다.

과제물은 졸업논문제도와 연관하여 위와 같은 의의를 갖는 반면에 다음과 같은 중요성도 함께 지니고 있다.

첫째, 전체 성적에서 30%의 비중을 갖고 있다. 물론 100점 만점에서 30점의 비중은 그리 높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경험적으로 볼 때, F학점을 받은 학생들의 최종 성적을 보면 대개 58점 또는 59점 하는 식으로 불과 몇 점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또한 그런 학생들의 2부시험(과제물시험) 점수를 보면 대개 25점 이하가 많다. 따라서 과제물시험에서는 최소한 30점에 근접한 점수를 받는 것이 학점취득의 조건이 된다. 그리고 좋은 학점을 기대하거나 대학생활에서 나름대로의 보람을 얻으려면 과제물을 충실히 작성하고 자신의 파일에 저장해 두면 중요한 학습 데이터 뱅크가 될 수 있다.

둘째, 과제물시험은 어떤 유형을 막론하고 논리적 사고의 효율적·체계적 표현을 위한 기본적인 원리를 익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가 대학에서 공부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교과서에 나오는 이론을 명확하게 암기하는 데 있다기보다도 그 기본 원리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재구성해 내는 데 있다. 여기서 과제물은 강의를 통해 부족한 부분, 특히 중요한 문제, 응용해 볼 가치가 있는 이론 등을 자기 스스로 참고 서적이나 자료를 통해 심도 있게 학습함으로써 이해의 폭을 심화시키는 데 있다. 과제 학습을 통해 어떤 것을 계획하고 이를 위해 조사활동을 하고 또 독특한 아이디어를 내는 것은 그 학습자에게 창의성을 길러주며 논리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갖게 한다.

(1) 과제물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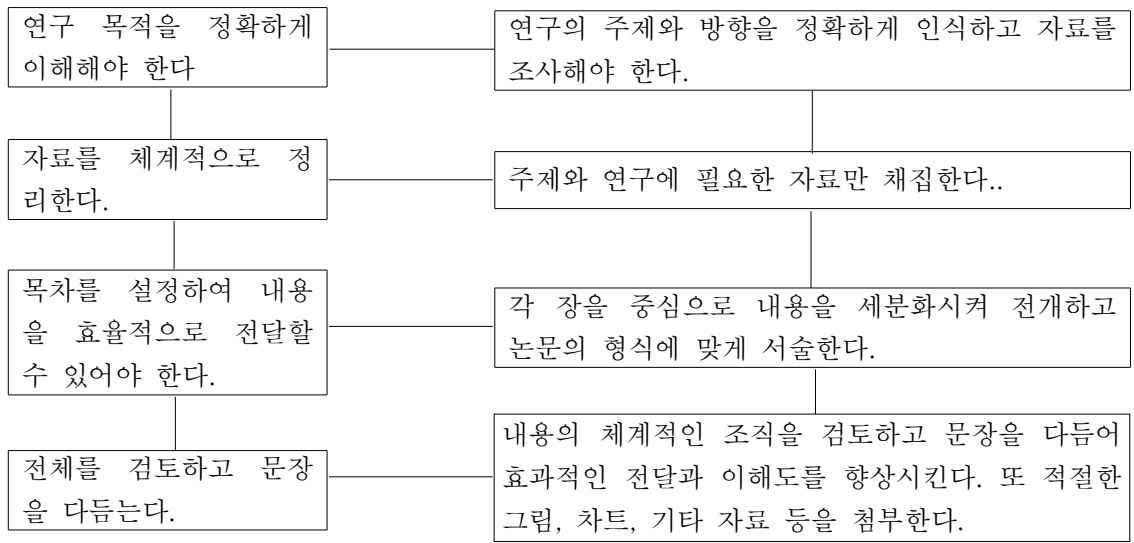
관심 있는 분야의 학문을 직접 자료를 채취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정리하며 동시에 이를 통해, 자기 주도적 학습을 실천할 수 있다. 또 다양한 자료와 정보 그리고 폭넓은 사고가 필요한 대학생들에게 과제물 학습은 필연적이다. 이처럼 연구자 중심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수준 높은 교육을 구현할 수 있게 때문에 제물 학습은 대학생활에 일정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에 없다.

(2) 과제물 작성시 유의사항

교수가 제시한 분야를 학생이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지적 작업을 추구할 수 있다. 또 좀 더 광범위한 내용을 알 수 있고, 영구 대상의 연구사를 통해 현재의 학문적 가치 및 방향을 이해함으로써 지적 향상과 흥미를 꾀할 수 있다. 또 학습자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전체적인 윤곽이나 나름대로의 주제를 추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연구의 습성을 길러준다. 또 교수와 학생간의 공감대 형성을 확장해 나갈 수 있다.

(3) 과제물 작성시 주의사항



제2장 과제물의 문제유형 및 유의사항

(1) 문제유형

문제유형은 학번고유번호의 끝자리 숫자에 따라 A형, B형, C형, D형, E형으로 구분되니 학번에 따라 반드시 해당 문제유형에 대하여 과제를 작성해야 한다.

A형	: 학번 고유번호의 끝자리 수가 1, 2인 학생
B형	: 학번 고유번호의 끝자리 수가 3, 4인 학생
C형	: 학번 고유번호의 끝자리 수가 5, 6인 학생
D형	: 학번 고유번호의 끝자리 수가 7, 8인 학생
E형	: 학번 고유번호의 끝자리 수가 9, 0인 학생

※ 학번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요령

1) 02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경우

학번이 200211-001237일 때 고유번호 01237에서 끝자리 수가 7번이므로 D형에 해당

2) 06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경우

학번이 200623-001234일 때 고유번호 001234에서 끝자리 수가 4번이므로 B형에 해당

(2) 과제물 작성시 유의 사항

- ① 반드시 해당 유형의 과제에 대하여 과제물을 작성해야 하며, 다른 유형의 과제를 작성한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 된다
- ② 과제물 작성은 개인별로 PC를 사용하며 A4용지에 작성하고, PC사용이 곤란하면 동일 규격의 시중리포트 용지를 사용한다.
- ③ 과제물 표지는 개인별로 작성 사용해야 하며 배부되지 않는다.
- ④ 과제물 표지규격 : 표지는 A4용지(가로 21cm × 세로 29.6cm)를 사용하되 가로 18cm × 세로 20.5cm의 표를 만든다.(표 좌우로 각각 1.5cm, 하단에 4cm의 여백 필요)
- ⑤ 과제물 작성분량 : 400자 원고지 12쪽 분량(A4용지 5쪽 이상)이면 가장 이상적이다. 문제마다 작성분량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나 A4용지 기준으로 볼 때 보통 표지 1page, 목차 1page, 서론 1page, 본론 5~6page, 결론 1page 정도로 작성하면 된다.

(3) 과제물 제출시 유의사항

- ① 작성한 과제물은 해당 학년, 학과의 중간시험일 해당 고사실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 ② 과제물은 규격대로 제본을 단단히 하여 제출한다.
- ③ 과제물 표지에 해당 고사실 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한다.

제3장 과제물의 종류와 형식

방송대학에서 과제물은 보통 비침삭과제물을 말한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과제물은 주관식 시험형(출석수업 이부시험), 과제물, 졸업논문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이들은 시험의 방식과 서술해야 할 분량이 다를 뿐 기본적인 서술체계는 논술형의 서술

방식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답안 작성법은 결국 과제물과 논문 작성 때에도 공통적으로 통용되는 사항이 많다.

(1)주관식 시험형(중간시험유형)

주관식 시험형은 미리 정해진 시험범위를 공부한 후 그 범위 내에서 출제가 되는 중간시험 유형이다. 앞에 언급했듯이 주관식 시험에서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여야 할 점은 노트 정리한 내용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시험도 일종의 논문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대체로 학생들은 강의한 내용만을 그대로 옮기면 좋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대체로 우수한 점수를 얻을 수 없다. 즉 그 내용에 대한 자신의 견해나 좀 더 심화된 내용이 첨부될 때 좋은 학점을 획득할 수 있다.

논문은 과제물의 연장이며, 논술형 시험도 과제물의 연장이다. 대개 주관식 시험은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내용을 알고 있는가보다는 알고 있는 내용을 이해한 후 얼마나 체계적으로 재구성했는가를 평가한다. 그러므로 짧은 시간에 답안을 쓰기 위해서는 평소에 합습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는 사실을 효율적으로 표현하는 기법을 익혀 두는 것이다. 학습한 내용이 잘 정리되어서 채점자에게 분명하고 쉽게 전달되어야 한다. 여기서 특히 유의할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험의 유형을 잘 알아야 한다.

대다수의 학생들이(특히 신입생일수록) 논술형, 설명형, 약술형, 단답형 등 주관식시험의 형태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거나, 구분은 하면서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주관식시험(출석수업 이부시험, 졸업시험 포함)의 답을 노트 정리식으로 처리한다. 또 형식은 구분하였지만 논리적 연관성이 없이 그냥 서론→본론→결론의 순서대로 단순하게 번호를 붙여 구분하는 정도에 머무른 답이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형식을 갖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목차, 서론→본론(논제)→결론’의 순으로 장을 나누는 것이다. 그러나 꼭 그것만이 형식을 갖춘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번호나 기호의 구분이 없다 하더라도 내용상으로 문단을 나누어 충분히 체계가 구분되어 있으면 된다.

그렇다면 왜 번호나 기호 또는 서론→결론이라는 표기를 통해 구분하는 것이 좋을까? 그것은 우선 시각적으로 다른사람(채점자)에게 쉽게 읽힐 수 있고, 간결하면서도 체계적이어서 논리전개가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둘째, 논제(문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험지를 받으면 우선 논제, 즉 출제자가 이 시험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파악한다. 출제자의 출제의도를 파악하기란 쉽지가 않지만 평소 담당교수의 강의를 잘 들었다면 대개는 알 수가 있다. 교수는 강의를 할 때 학생들이 꼭 이해하기를 바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강조를 한다. 또는 강의 전반을 통해 그 교과목을 이해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출제의도란 보통 그 속에 있다.

셋째,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간결한 문장으로 표현한다.

좋은 글이 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문장 표현과 논리적 전개가 중요하다. 정확한 문장이 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하나의 주어와 술어로 구성된 단문으로 쓰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자세이다. 이때 주어와 술어가 분명하게 구분되면서도 서로 의미가 명백하도록 한다. 주어를 생략하여 불완전한 문장이 되지 않도록 한다. 교재의 내용을 미리 이해한 후 참고문헌(자료)을 나름대로 자기 언어로써 재구성해 내는 것이 훌륭한 과제물이 되기 위한 관건이다. 예컨대,

- ① 문장에서 영어식 표현을 피하는 것이 좋다. 그 예로 범인의 총에 의해 경찰이 살해되었다.(→범인은 경찰을 총으로 살해하였다.)
- ② 한글맞춤법, 특히 띄어쓰기 및 표준어규정과 외래어표기법 등에 유의하기 바란다. 최신 정서법(正書法)에 관한 책을 구하여 공부해 둔다.
- ③ 문제의 정답을 잘 모르는 경우에는 백지로 제출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와 관련된 주변의 사항일지라도 쓰는 정성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안이하게 '기본점수'를 기 대하여 논제와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써서는 안 된다.
넷째, 구성을 치밀하게 한다,. 그 순서를 간략히 요약해 보자.
논제를 파악하고 나면 논점을 파악한다. 논점은 무엇인가, 논점은 몇 개인가, 그 중에서 궁극적으로 강조해야 할 점은 무엇가를 적어 본다. 논점이 파악되었으면 그것을 소재로 하여 자기가 쓰고자 하는 내용을 어떻게 기술할 것인지에 대한 구성을 한다. 여기서 구성이란 논술할 내용의 뼈대가 되는 핵심용어 · 문구 · 소주제를 배열할 방식을 정하는 것이다.
전체의 개요를 목차로 만들어 본다. 목차는 논문의 뼈대이다. 목차는 논점을 중심으로 잘 구성하면 자신이 서술하려고 하는 내용을 빠짐없이 적당한 분량으로 배분할 수 있다.
논리의 전개와 배열은 하나의 중심적인 내용으로 이뤄진 문단(文壇)을 중심으로 행(行)을 나눈다. 마치 수필처럼 두서없이 전개하거나, 논제와 상관없는 사실을 장황하게 나열하면 곤란하다.
문단과 문단이 의미상으로 상호연관성을 갖도록 한다.
이것이 끝나면 그 골격에 살을 붙이는 작업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명확한 문장으로 간결하게 설명해 주기만 하면 된다. 이때 노트 정리식으로 서술하는 것은 피해야한다.
다섯째, 시중에 미리 배포된 예상 모범답안을 베껴내서는 안 된다. 어떤 형태이든 미리 작성된 모범답안을 그대로 베껴서는 절대 안 된다. 학생들 중에는 시중의 상업출판사에서 판매하는 예상문제를 그대로 작성하여 내는 경우가 있다. 이는 도둑질과 같은 것이다. 물론 점수도 나오지 않는다.

(2) 비첨삭형 과제물(레포트)

비첨삭형 과제물은 집에서 상당한 기간을 두고 작성하여 제출하는 일종의 시험이면서 논문이다. 논문이란 연구한 내용과 결과를 논술형 체계(목차, 서론 → 본론 → 결론, 참고 문헌)을 갖추어서 서술하는 것이다.

과제물은 소논문의 형식을 빌린 시험의 일종이다. 그러나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다양한 참고자료를 통해 논리를 중시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따라서 아무리 사소한 과제물 또는 보고서(약술형이 아닌 일반적인 논술형 또는 설명형인 경우)일지라도 논술형 체계를 갖추는 것이 기본이다.

구체적인 작성원칙들은 앞서 논의한 주관식 시험형과 거의 비슷하다. 단지 과제물은 집에서 작성한다는 점이 다르다. 따라서 논점을 파악하는 것과 구성, 참고자료를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해 볼 수 있다. 또 작성할 분량이 시험형 보다는 많고 논문보다는 적다는 것이 다르다(작성요강은 해당 학보를 참고할 것). 그러면 과제물 작성과 원칙에 대해 알아보자.

논술형의 기본형식을 갖추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논술문의 형식이 중요한 것은 주어진 주제를 논리적 · 체계적으로 서술하기 위한 기본조건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그 문제 형이 논술형인지 약술형인지를 먼저 파악하여야한다.

논술형의 예는, “...에 대하여 논하라”, “...을 논술하라” 등이다. 이때는 논술형의 형식

(체계)인 서론 → 본론(소주제 또는 논제) → 결론 또는 머리말 → 몸말(소주제, 또는 논제) 등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논술문의 각 부분에는 그에 적합한 내용이 서술되어야 한다. 이를 간략히 설명해 본다.

- ① **목차**를 만든다. 목차는 과제물의 전반적인 내용이 함축되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제물의 얼굴이라 할 수 있다. 대개는 목차의 내용과 구성만 보고도 그 과제물의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다.
- ② **서론**은 논술의 도입부이다. 여기서는 작성자가 논제의 중요성, 의의 등을 파악하여 논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이다. 또한 논제를 풀어나가는 방식, 논의의 범위를 밝힌다. 그 외의 구체적인 논의 또는 결론은 본론이나 결론에서 논의한다.
- ③ **본론**은 논술의 중심부로서 서론에서 문제제기한 것의 답(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논제에만 충실한 설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각 소주제에 대한 소결론을 제시한다.
- ④ **결론**은 본론에서 논의하여 도출된 소결론들을 간략히 요약·강조하고, 약간의 논평, 자신의 견해, 논의가 부족했거나 계속 연구할 가치가 있는 사항을 제시한다. 이때 서론과 결론의 분량 배분을 대략 10% 내외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지나치게 비약된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충분한 논리적 근거, 참고문헌을 통해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강한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참고문헌을 제시해 주지 않았더라도 논제와 관련된 다양한 참고자료를 동원하면 좋은 과제물로서 평가받게 된다.
- ⑤ **참고문헌**은 과제물 작성과정에서 참고하였거나 인용한 자료를 말한다. 이 때 중요한 참고문헌을 모두 과제물의 맨 뒤에 목록으로 기록해야 한다. 참고하지도 않은 것은 목록에 수록해서는 안 된다.

◆ 과제물을 훌륭히 쓰려면

- ① 분량 : 5페이지 이상(기본)~7페이지
- ② 표지 : 방송대 표지 규정(양식)에 맞게
- ③ 자신만의 관점(성과) : 독창성, 창의성, 자신의 생각
- ④ 신선한 자료 : 남들이 안 해본 영역, 처음으로 시도

◆ 과제물을 잘 쓰기 위한 발상

- ① 多識(많이 알아야 한다.)
- ② 獨創性(나만의 길)
- ③ 形式(논문으로서의 형식)

◆ 어떻게 쓸 것인가

서론

1. 논의의 목적(연구목적)
2. 논의의 방향과 한계
3. 방법
4. 유사연구·차기연구와의 관계

본론

1. 과제 대상 열거(도형, 도표, 그림 활용)
2. 분석(다양성 - 자신의 관점은 꼭 들어가야 함)
3. 극복한 성공사례 : 자료제시(최근 것, 생생한 것)
4. 해결 방안(객관성, 실현성) : 실현 가능한 주장을 항목화 시킴

본론 예) ① 환경 문제(자동차)

- ② 자동차의 효율적 이용과 개선방안
- ③ 선진국의 사례
- ④ 국내 자동차 산업의 방향
- ⑤ 현실적 문제 적용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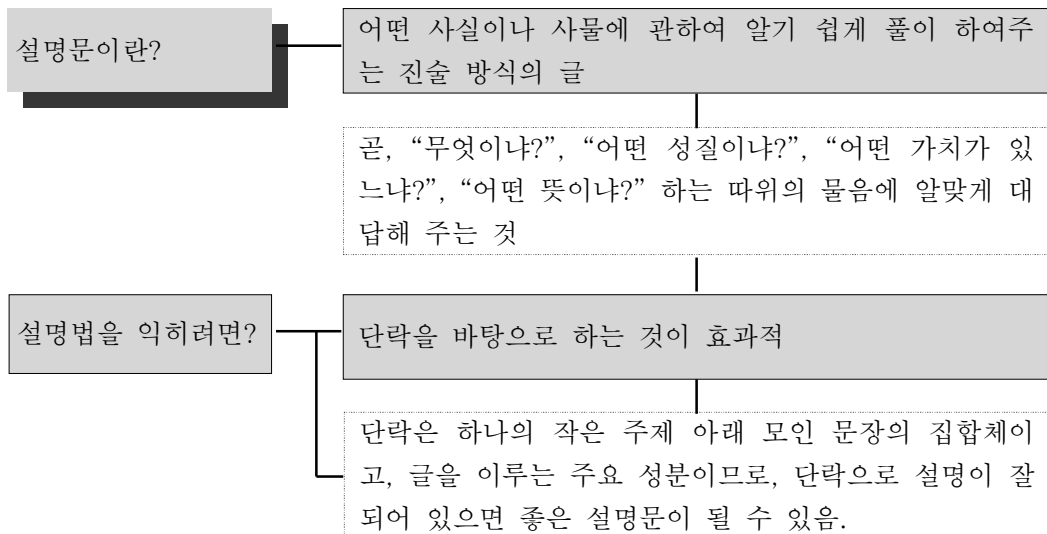
결론

1. 본론의 실천방안을 요약(재현)
2. 기대 효과

(3) 설명문과 약술형 과제물

설명형은 기본적으로 논술형과 비슷하다. “...에 대해 설명하라”, “...에 관해 아는대로 써라” 등은 설명형이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있는 사실을 그대로’ 설명하기만 하면 되고 논 문형처럼 독창적인 사실, 다양한 자료, 논리적 결론의 도출이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단 지 서술방식은 논술형과 거의 유사하게 하는 것이 좋다. 학생들은 설명형의 경우 약술형 처럼 형식도 없이 나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옳지 못하다. 이때 논문의 형식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바로 서론 - 본론 - 결론에 논제의 설명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성을 유지하고, 각 장에 들어가는 내용이 필요한 내용만 제대로 기술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약술형은 반드시 논술형의 형식을 갖추는 필요가 없으며, 논제에 대하여 핵심적으로 요구하는 답만을 간단 · 명료하게 기술한다. 답안지 10줄 내외에서 조정한다. 기타, 답안 작성에 대한 공통사 항은 비첨삭형 과제물과 유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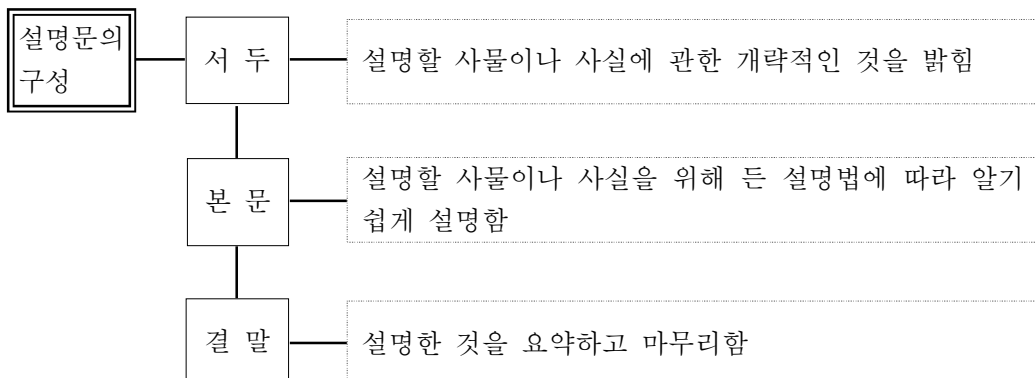
◆ 설명형 과제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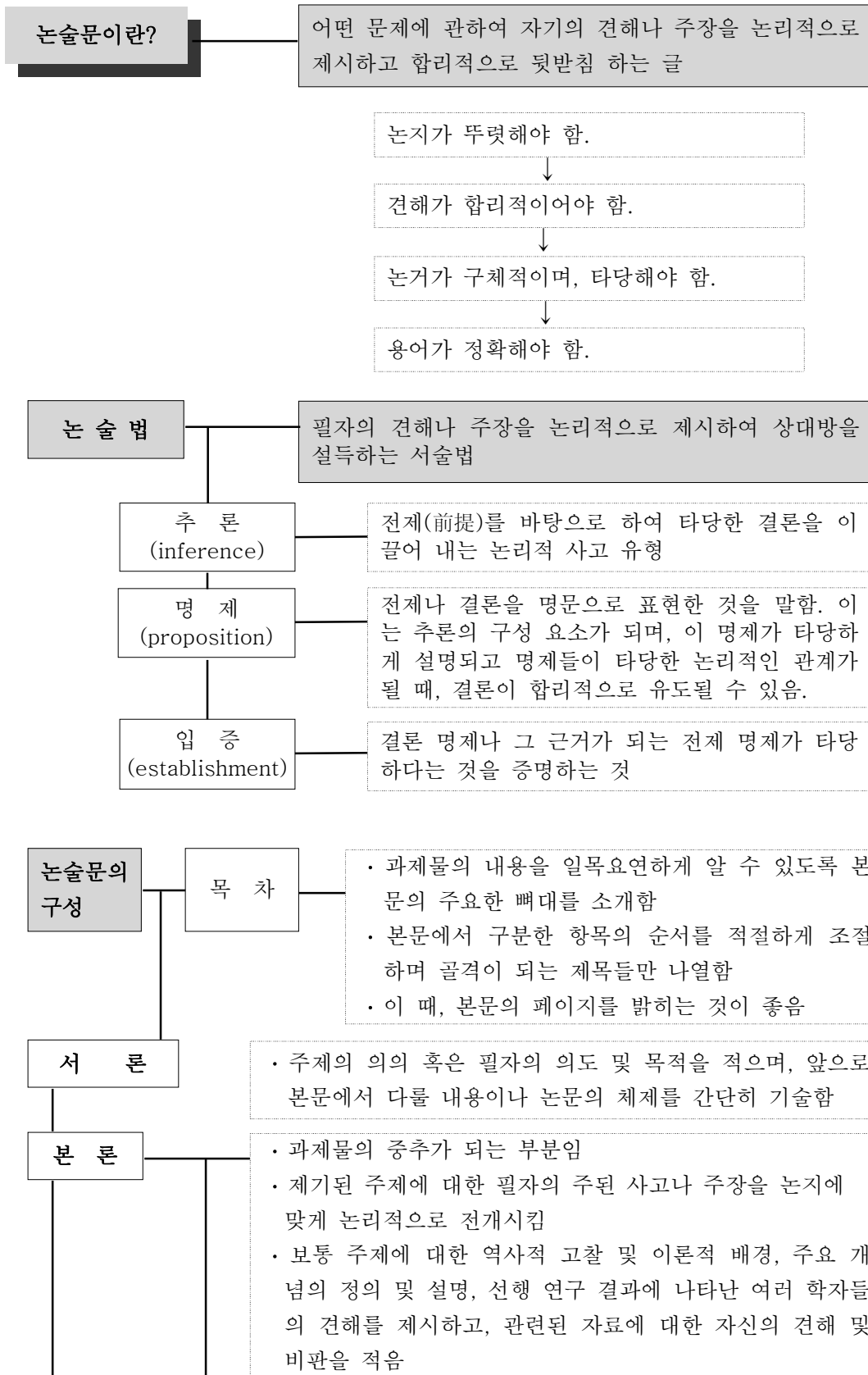
지 정 (identification)	문제된 사람이나 사물에 관해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듯이 지적해 주는 것
정 의 (definition)	단어나 사물의 뜻을 알기 쉽고 명확하게 뜻매김하는 것으로, 설명법의 기본이 됨
비 교 (comparison)	두 사물의 비슷한 점을 들추어서 서로 얼마만큼 가까운가를 보여주는 것
대 조 (contrast)	두 사물의 서로 다른 점만을 지적해서 서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드러내는 것
분 류 (classification)	일군(一群)의 사물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갈라짓는 것
분 석 (analysis)	사물의 구조를 그 성분 또는 기능에 따라 나누어 밝히는 것
예 시 (exemplification)	소주제나 그 관련 사항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
인 용 (quotation)	설명하고 있는 사물에 관련 있는 학설·사실 등을 따다가 흥미 있고 실감 있게 하며, 설명하고 있는 사실의 뒷받침을 강화하게 하는 것, 이 경우엔 반드시 주(註)를 달아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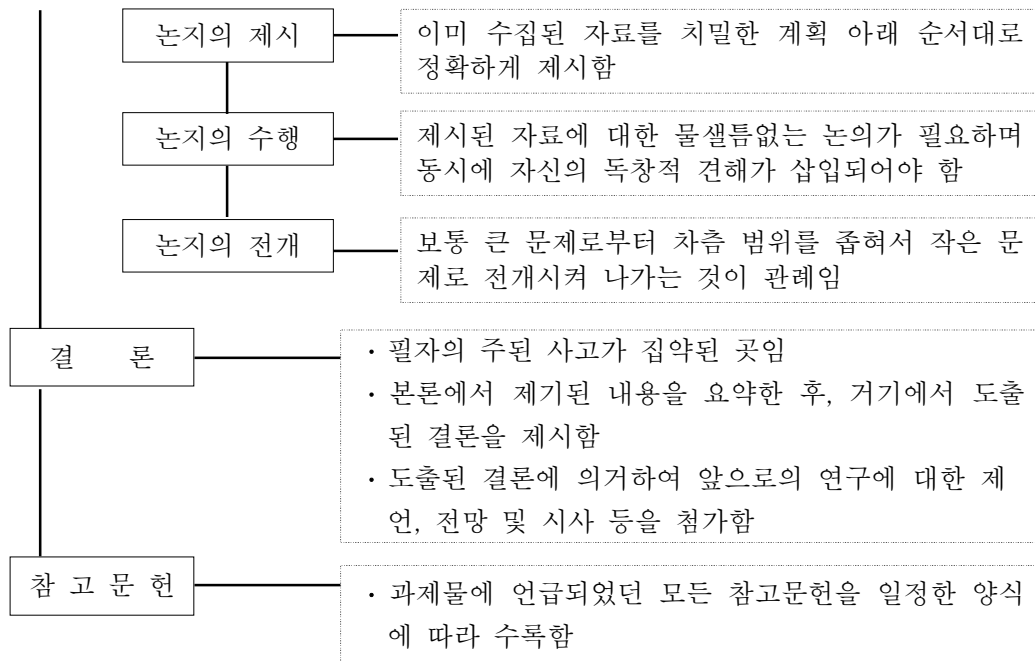
재 진 술 (restatement)	문단의 소주제문 또는 그 밖의 주요 문장을 같은 문장을 말을 바꾸어서 다른 표현 형식으로 나타내는 것
------------------------	--

종 합 설 명 법	여러 가지 설명법을 종합하여 한 단락을 펼치는 것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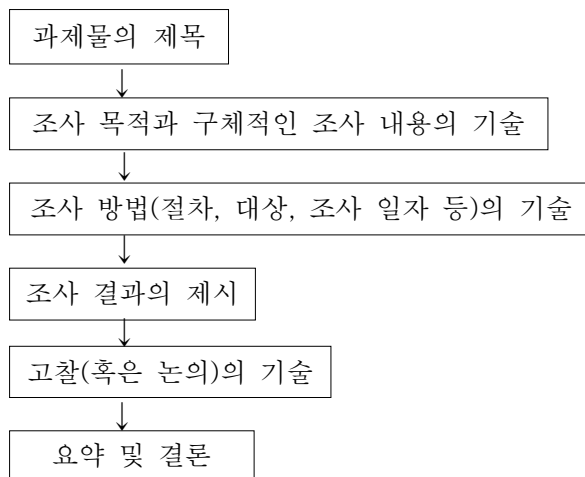


◆ 논술 형식의 과제물





◆ 실험 및 보고서형 과제물 — 주로 자연과학 계열에서 쓰임



◆ 최종 점검 및 퇴고시 검토할 사항

지금까지 설명한 과제물 작성요령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논제에 적합한 형식을 갖추었는가.
- ② 각 형식에 적합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고, 그것이 적당한 분량으로 배분되어 있는가.
- ③ 논제에만 충실하여 논리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또는 논리적 비약이 없는가. 그리

고 논제가 선명하게 강조되었는가.

- ④ 간결한 문장과 문단 구분으로 표현되어 있는가, 추가하거나 간략히 요약할 필요가 있는가, 오자·탈자·문법·맞춤법·띄어쓰기가 잘 되었는가.
- ⑤ 참고문헌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였는가.
- ⑥ 교제의 내용을 논제에 맞추어 독창적으로 재구성하였는가.

실제연습

다음과 같은 문제가 주어졌다고 가정하자.

“중재재판과 사법재판을 비교 설명하라”

이에 대하여는 보고서의 내용을 크게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어 구성하여 보자.

왜 이런 문제가 주어졌는가를 생각하여 서론을 작성한다. 즉 중재재판과 사법재판은 모두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방식 중 사법적 해결방식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서론에서는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특히 사법적 해결의 의의에 대하여 설명하고 중재재판과 사법재판이 그 중 핵심적 내용임을 설명한다.

다음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본격적으로 양자를 비교한다. 이때 나름대로 판단을 하여야 한다. 대개 이런 문제가 주어지면 양 제도 설명을 위하여 공통될 수 있는 소항목을 추출하여 그 소항목별로 양자를 대비 설명하는 방식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즉 교제의 중재재판과 사법재판에 대한 설명을 일별해 보면 그 내용이 1) 의의 2) 구성 3) 대상 4) 준칙 5) 절차 6) 효력 7) 역할 등의 순으로 설명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의의, 구성, 대상, 준칙 등으로 소제목을 잡고 그 각각의 소제목 내에서 중재재판의 준칙을 대비 설명하는 방식이 가장 좋은 형식이 될 것이다. 이 방식은 양제도의 특징을 가장 분명하게 부각시키게 된다. 물론 양자에게 공통되는 항목으로 묶을 수 없는 내용도 있다. 예를 들어 사법재판 중 ICJ의 권고적 의견은 중재재판에는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특별한 내용은 끝머리에 별도로 설명한다. 비교하라는 문제를 받고 1. 중재재판. 2. 사법재판이라는 식으로 큰 제목을 달은 다음, 양자를 각각 설명하고 글을 끝내는 답안도 많다. 그런 답안은 비교를 한 것이 아니라, 중재재판을 설명하라는 사법재판을 설명하라는 2개의 문제에 답한 셈이다. 결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

끝으로 결론 부분에서는 양 제도를 비교한 나름대로의 평가를 서술한다.

이상은 하나의 예이다. 물론 “비교하라”는 문제에 대하여 모두 위와 같은 형식의 답안이 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비교의 대상인 2개의 주체가 상호 대등하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설명의 양이나 비중이 불균형을 이룰 수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별도의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한 판단을 하는 능력은 결국 많은 공부의 양을 통하여 길러진다.

제4장 과제물 작성절차

(1) 주제의 파악

학생들에게 부과되는 과제물은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주어진 제목에 따라 작성하게 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구체적인 제목을 자신이 선정하게 되는 경우이든 완전한 제목이 정해진 경우이든 과제물을 작성할 경우 제일 첫째 할 일은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일이다. 즉 부과된 과제의 내용을 신중히 읽고 분석하여 출제자의 진의를 파악하는 것이 훌륭한 과제물을 작성할 수 있는 첫걸음이자 길잡이가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행정과정의 의사전달방법을 논하라」고 할 경우 이 과제가 요구하는 바는 의사전달방법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과정만 상황하게 늘어 놓는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평소에 이 과목에 대한 공부를 소홀히 하여 이에 대한 식견을 갖고 있지 못한 데서 온 것이다. 그러므로 과제의 주제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평소 강의를 잘 듣고 열심히 공부하여 기본지식을 충분히 갖추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2) 자료수집

과제의 주제가 파악되면 그 분야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고 수집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학생들은 이 기회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부를 해두자는 자세를 갖추고 자료수집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자료수집은 주제와 관계된 모든 현상에 대한 자료를 빠짐없이 조사해야 한다. 모집된 자료의 분석에서 결론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수집된 자료가 부분적이거나 불충분한 것일 때는 결국 과제물 자체도 불충분하게 되며 오류를 범할 소지를 안게 되는 것이다.

자료는 과제의 성격에 따라 이론적인 것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역시 과제의 성격에 따라 접근을 달리 하여야 한다. 이론에 중점을 둔 과제물은 실제자료를 중심으로 수집하여야 하나 대부분이 문헌과 실제자료를 동시에 이용하여야 되며 때로는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할 때도 있게 된다.

(3) 과제물의 작성

주제에 따라 자료의 수집이 되었으면 이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정리하여 이를 토대로 과제를 작성하게 된다. 작성상의 구체적인 문제들은 항을 달리 하여 논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유의점만 간단히 보기로 한다.

과제물의 작성은 주어진 주제에 대해 자기가 공부한 바를 글로 표현하는 것이므로, 우선 상대방에게 잘 전달이 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잘 표현하고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이해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충분한 자료수집과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되어 있지 않고서는 훌륭하고 창의성있는 과제를 작성할 수 없으며 따라서 멋진 표현이 나올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자기가 수집한 자료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나서 과제작성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제목음미단계	· 교재의 관련부분을 읽고, 그 문제에 관련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한다. · 아울러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한다.
자료수집단계	· 참고문헌을 구분한다. · 참고문헌을 통독한다. · 관련 부분을 상세히 읽고, 필요한 부분을 카드에 기록한다.
내용 및 체제 단계	· 과제물의 내용을 어떻게 기술한 것인지 또한 이 내용을 어떤 체제로 나타낼 것인지를 결정하여 과제물의 개요를 쓴다. · 이때, 단순히 자료를 정리하는 것만으로는 좋은 내용이 될 수 없으며, 논지의 전개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초고 작성 단계	· 구상한 내용 및 체제에 따라 글을 쓴다. · 이 때 이미 작성된 개요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제시한다. · 자신의 견해를 밝혀 가며 논지를 체계적으로 전개한다.
검토 단계	· 초고가 끝나면 쓴 것을 다시 읽어 보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한다. · 쓰고자 한 바를 충실히 설명 혹은 논술했는가? · 읽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표현되었는가? · 글이 다양성 있게 짜여졌는가? · 각 부분이 통일성을 잃지 않았는가? · 첨가하거나 수정할 필요는 없는가?
정서단계	· 이상의 사항들을 검토하고 필요한 사항을 첨가 · 수정하고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한다. · 그런 후 정서를 하는데, 이때에는 맞춤법 · 문장 부호 등이 틀리지 않게 유의해야 한다.

제5장 과제물의 구성

(1) 표현과 목차

과제물은 대부분이 제목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일반 논문과는 달리 표제를 별도로 정할 필요는 없으나 간혹 학생이 제목을 정해야 할 경우도 있다. 이 경우 표제는 그 과제물의 주제가 무엇인가를 명백히 보여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개발사업」이라는 표제는 적당치 않다. 적어도 「○도 ○○군 ○○면 개간사업 계획서」 정도는 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 「자기가 주로 하는 일(직업)을 중심으로 하루 활동량을 기록하고 이에 필요한 칼로리를 계산하시오」라고 한 경우 「자기가 ... 하시오」식의 표제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교원(직업이 교원인 경우)의 1일 칼로리 섭취량」이란 표제가 주제를 보다 분명히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표제에 곁들여 목차를 제시하는 것은 표제 하나만으로는 그 속에 담긴 것을 완전히 나타내 보이기 어려우므로 표제 속에 담긴 내용을 간략히 보이는 효과가 있다. 그러므로 자신이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표제 다음에 목차를 제시하는 것이 좋다.

(2) 조직 또는 구성

모든 글의 작성이 거의 마찬가지로이지만 과제물 역시 크게 3부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다 ①서론 ②본론 ③결론이 그것이다.

서론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밝혀야 할 사항을 쓰는 것으로 그 주제를 택하게 된 동기 (때로는 필요없을 수도 있음), 주제의 개념 및 과제물에서 특별히 밝히고나 하는 바 등을 쓴다. 서론은 간명한 것이 좋다.

본론은 과제물의 중심이 되는 부분이다. 그러므로 모든 논의를 단일화 중심과제를 초점으로 하여 집중시켜야 한다. 지엽(枝葉)에 사로 잡히거나 불필요한 이야기로 흘러서는 안된다. 논의의 전개방식은 주제의 성격에 의해 결정된다. 이론적인 논의를 요하는 성격의 것일 때는 그 분야에 대해 과거에 여러 학자들이 발표한 논문을 참고로 하여 논설이 분분할 때는 이를 분류 소개하고 각설의 장단점을 객관적 입장에서 분석하고 자기의 견해를 수집한 자료를 제시해 가면서 밝히는 순으로 전개할 것이며 실제의 자료를 토대로 할 경우는 자기가 사용할 이론들을 간략히 제시한 후 그에 따라 경험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면 된다.

결론에서는 본론에서의 논의를 요약하고 종합적이고 최종적인 단정을 내린다. 결론은 간명할수록 좋으며 서론이나 본론에서 논한 것을 되풀이 할 필요는 없다

(3) 문장

과제물 등 논문의 문장은 소설이나 수필의 문장과는 다르다. 논지의 명식성이 과제물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건인 만큼 문장이 화려하지 않아도 좋고 정적이지 않아도 좋다. 과장이나 군더더기가 있어서는 안되지만 비약이 있어서는 안 된다. 간결하게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일관성있게 서술해 나가야 한다.

(4) 참고 및 인용

과제물을 작성함에 있어서 어떤 논문이나 저서 및 기타 자료를 참고로 했을 때는 그것을 밝히는 것이 원칙이다.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타인이 이미 말한 것을 참고할 경우 그것을 밝히는 것이 학도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예의이다.

(5) 주(註)의 형식

주관 타기록물을 참고 또는 인용했을 때 그 출처를 밝히는 것으로 과제물의 끝에 한꺼번에 표시하는 수도 있고 페이지마다 밑에 각주로 달 수도 있다. 원문을 3행 이상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는 “ ”를 사용하고서 출처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 또는 각주의 다른 형식은 일반논문이나 저서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논문일 때는 ①필자명 ②논문제목 ③발표된 책명 ④ 권수 ⑤호수 ⑥발행지 ⑦발행연도 ⑧ 페이지의 순으로 쓴다. 저서일 때는 ①저서명 ②책명 ③발행지 ④출판사명 ⑤발행연도 ⑥페이지 순으로 쓴다. 저서의 원서가 아니고 번역서에서 인용했을 경우나 재인용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밝혀야 한다.

각주 및 주의 예는 다음과 같다.

- ① 논문일 경우 : 임인재, “학습자로서의 성인의 특징에 관한 고찰” 통신교육논총 제1집(서울 : 한국방송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1997) pp.59~72
- ② 저자일 경우 : 박종홍, 「철학개설」, (서울 : 박영사, 1997) pp.102-128

제6장 과제물의 요건

과제물이란 일종의 논문이라고 할 수 있다. 논문은 물론 그 종류에 따라 연구논문, 보고 논문(report), 평론, 단행본 등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논문의 종류에 관계없이 갖추어야 할 요소가 몇 개 있다. 논문작성법이란 이름으로 발간된 책을 읽어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나누어 설명되어 있을 것이다.

즉 논문(report)의 요소로는 첫째 독창성을 든다. 말할 것도 없이 자기 혼자 힘으로 새롭고 독특한 것을 고안해 내거나 만들어 낸 것을 의미한다. 구태의연하거나 남의 글을 그대로 베끼는 것은 절대로 독창적인 글이 아니다. 어떤 재료(문헌)를 갖고 원래의 그것보다 더 좋게 표현해보려는 노력에서 우리는 비로소 창의성, 독창성을 기를 수 있는 것이다. 단지 그냥 베껴내는 것은 지적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정확성이다. 여기서의 정확성이란 인용하는 사람의 이름, 통계의 서적이나 책에만 의존하는 것은 옳지 않고 가능하면 여러 개의 참고문헌이나 관련 서적을 보고 쓴 것이 좋다. 세 번째는 불편성(不偏性)이다. 선입견, 억지주장의 배제가 중요하다. 어떤 정보나 학설을 공평하게 평가하는 자세는 필수적이다. 네 번째는 객관성이다. 이것은 불편성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어떤 사실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고 실험의 경우에는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해야 한다. 그 글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수긍이 갈 수 있는 근거를 첨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검증성은 발표된 성적이 다른 학자나 연구자에 의해서 다시 재현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만약 다른 보고자가 같은 실험을 하였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 그 학설은 설득력이 없고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과학논문인 경우에 연구 작업의 경과, 방법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 다른사람이 그와 같은 실험을 하였을 때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쉽게 쓴 글이 필요하다. 별로 대단하지도 않은 내용을 어렵게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려운 것도 쉽게 서술하는 사람도 있다. 쉽게 쓴 글은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독자로 하여금 호평을 받게 된다. 아무리 좋은 내용의 논문이라도 그것이 이해하기 어렵게 쓰여 있다면 이는 좋은 논문이라 할 수 없다.

좋은 과제물을 쓰기 위해서는 출제자의 의도에 맞는 내용으로 채워야 함은 물론이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 출제되는 과제물이다. 설명문이란 그 단어가 의미하는 바와 같이 어떤 사실이나 사물을 알기 쉽게 풀이한 글로“...에 대하여 설명하라”와 같은 형태를 띤다. 이런 형식의 글은 정의, 비교, 대조, 분류, 예시, 인용 등과 같은 기법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다. 두 번째는 논술형식의 과제물이다.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어떤 주제에 관하여 자기의 주장이나 견해를 논리적으로 제시하여 주장을 펴는 걸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의론의 요지가 뚜렷하고 취지나 논의가 잘 정리된 글로 구성해야 한다. 또 논거가 구체적이고 용어를 정확하게 쓰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실험형이 있는데 이는 주로 자연과학 계통에서 많이 쓰는 것으로 실험을 통하여 그 결과를 데이터화하고 이를 다시 그림이나 표로 나타내어 설명하는 것이 그 요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7장 과제물 작성요령

과제물 작성에 대해 1.주제파악, 2.자료의 조사, 3.자료의 채록, 4.자료정리, 5.과제물 작성의 5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1) 주제파악

과제물을 작성하려면 부과된 과제물의 내용을 신중히 읽고 분석하여 출제자의 출제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여된 제목의 교재 해당되는 부분을 찾아 앞뒤를 읽어본 후 그 과제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2) 자료의 조사

이 과정은 각자의 전공분야 또는 선정된 문제의 성질에 따라서 달리 취할 수도 있으나 보편적으로 취하는 체계적인 자료조사 과정을 알기 쉽게 보이기로 하겠다.

- ① 선정된 문제의 성격을 뚜렷이 파악하기 위해서 우선 그 문제의 전체적인 개념 또는 보편적인 개념을 알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류(문학사전, 역사사전, 철학사전, 백과사전)를 뒤져 보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 ② 선정된 문제의 개념을 파악한 다음에는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자료를 조사하기 위해 도서관열람실이나 연구실을 찾도록 한다. 그 곳에서는 현재까지 출판된 전문서적은 물론이고 연간, 월간, 계간, 논문집 또는 부정기간의 모든 학술지를 상세하게 조사해야 한다.
- ③ 지도교수, 학계의 선배, 또는 동창에게 지도를 받도록 한다.

(3) 자료의 채록

부여된 과제에 대하여 자료가 조사되었으면, 과제의 바탕이 될 자료를 구체적으로 채록하는 단계에 들어가야 한다. 어렵게 수집한 중요한 자료를 부주의 탓으로 놓치는 수가 있으므로 다음의 주의 사항을 충실히 지켜나가면 비교적 확실한 채록이 될 것이다.

- ① 채록을 위한 감(material) : 연구과제의 순서에 따라 마음대로 그 배열을 바꿀 수 있는 편의로 보이나 자료 채취의 감으로는 카드를 쓰는 것이 편리하다.
 - ㉠ 한 장의 카드에는 꼭 한 가지 내용만을 기입하는 것이 좋다. 카드나 노트를 절약한다고 여러 가지 내용을 기입했다가는 뒤에 정리 할 때 매우 불편할 것이다.
 - ㉡ 카드나 노트는 한쪽만 써야 한다. 만약 한 장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연속 번호를 붙인 같은 표제(Heading)의 감을 쓰면 된다.
- ② 채록방법
 - ㉠ 각자가 자료 채취해서 읽은 다음과 같은 서지사항(書誌事項)을 정확하게 기입·정리해 두어야 한다. 즉 저자명, 책명, 출판된 곳, 출판사명, 출판년월일, 채취된 자료가 실려있는 페이지의 숫자 등을 기입해 두어야 한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기재된 카드를 master card라고 하며, 과제물 또는 논문 끝에 반드시 부쳐야 하는 참고문헌 목록에서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 master card 다음에는 인용부호로 명시된 인용문을 기입하거나, 내용을 요약문 등을 기입한다. 이 카드는 과제물작성의 중심이 되는 구실을 하게 될 것이다.
 - ㉡ 자료의 채록카드 기입에 앞서 각자가 선택한 참고문헌은 반드시 그 서문이나 목차를 대충 검토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그 책이나 논문의 장, 절, 항들을 대충 통독하고 나

서 정독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가려서 채록해야 한다.

- ㉔ 카드에 실지로 기입할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정확하고도 완전하게 기입하여야 한다. 뒷날 같은 책을 두 번 다시 읽을 필요가 없도록 완전하게 채록하여야 한다. 또 완전인용을 할 때에는 반드시 따옴표를 사용함으로써 요약하여 채록된 글과 혼동되지 말도록 하여야 한다.
- ㉕ 다음에는 카드를 정리하여 분류해야 한다. 조급한 정리는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함으로써 과오를 범하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 ㉖ 요약을 하거나 의역을 할 때에는 자기의 주관을 섞어서는 안된다. 자기의 의견과 원문의 내용은 엄격히 구별되어야.
- ㉗ 한문이나 외국어로 된 자료는 반드시 번역을 하여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두어야 한다. 그리고 과제물이나 논문에서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번역문을 쓰도록 해야 한다.

(4) 자료정리

가능한 자료를 완전하고도 정확하게 채록하였다는 생각이 들면 초고작성에 들어가기 전에 채록하면서 간단히 해두었던 정리작업을 다시 검토하여 그 내용과 분량을 조절하면서 채록된 자료의 재배열과 취사를 선택을 해야 한다.

(5) 과제물작성

자료정리가 모두 끝나면 과제물 작성에 들어간다. 작성의 체제는 보편적으로 i)문제표지, ii)과제본문, iii)참고문헌의 세부분으로 구성되며 이들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① 논지표지

- ㉘ 이 논제 표지는 각 대학에서 엄격히 규격을 만들어 완전히 통일된 체제를 쓰고 있다. 우리 방송대학에서도 규격 과제물 용지표지를 사용하고 있다. 규격 양식이 없을 경우 다음과 같이 표지를 작성한다.

- i)논문제목(다른 항목들보다 큰 글씨로)
- ii)제출처(학위논문일 경우) 또는 담당교수명(학기말 Report 경우)
- iii)학위구분(학위논문일 경우), 과목명(학기말 Report 경우)
- iv)제출자 성명(학교명, 과명, 학년, 학번을 명시)
- v)제출년월일

- ㉙ 목차 : 이 목차는 과제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전체 과제물 내용의 주요한 핵심을 소개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나치게 상세하면 오히려 번잡해질 우려가 있다. 이 목차는 용지 첫장에 쓰도록 한다.

- ㉚ 과제본문 : 이 본문은 대체로 서론(introductory chapter), 본론(major report of the study), 결론(conclusion)의 세부분으로 나뉜다.

- ㉛ 서론(introductory chapter) : 과제물의 전개방향이 제시되어야 하며, 논제의 개념 및 과제물에 대해서 특별히 밝히고자 하는 바 등을 간명하게 서술하도록 한다.

- i) 문제점에 대하여 조사나 연구를 수행해야 할 목적을 명백하고도 완전하게 제시해야 한다.
- ii) 문제점의 중요성에 대하여 확실하고도 특이한 이유를 주장해야 한다.

iii)과제물에서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사실을 미리 밝혀둔다.

iv)문제점이나 그것에 관련된 기존업적에 대하여 간단히 수반하는 연구사의 개략을 소개해야 한다.

v)자료나 논거의 출처, 연구과정의 방법, 사실의 처리 등에 대한 기술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

vi) 서론부분은 전체 과제 분량의 약20%매 정도면 충분하다 하겠다.

㉞ 본론(major report of the study) : 이것은 과제물의 중심이 되는 부분이다. 모든 논의를 단일한 중심과제를 초점으로 하여 집중시켜야 한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논해야 하며, 학자들이 발표한 논문이나 데이터, 저서를 참고로 하여 논설이 다양할 때는 이를 분류 · 소개하고 각 설의 장단점을 객관적 입장에서 분석하고 자기의 견해를 수집한 자료에 의해서 전개해 나간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따르도록 한다.

i) 논지의 전개나 데이터의 제시는 큰 문제로부터 좁은 범위로 또는 작은 문제의 관계되는 것의 순서로 배열한다.

ii) 논의의 순서도 큰 문제부터 해명해 놓고 차츰 문제를 좁혀가면서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해 나간다.

iii) 연역적이기 보다는 귀납적으로 전개해 나간다.

iv) 본론부분은 전체과제 분량의 약 65%매 정도로 압축해야 한다.

㉟ 결론(conclusion) : 본론에서 밝혀진 중요한 사실이나 결론을 논지의 전개에 따라서 순서대로 재정리하고 간단명료하게 요약하는 것이 좋다.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은 본론에서 논의한 부분을 종합판단하여 귀납적으로 이끌어 내야 한다. 그리고 용약을 할 때 주의 할 점은 과제를 써 나가는 동안에 아직 해명되지 못한 부분, 즉 숙제로 남는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지적해 둘 필요가 있으며, 될수록 간명하게 하는 것이 좋다. 결론부분은 전체 과제 분량의 약15%매 정도면 충분하다 하겠다.

③ 참고문헌 : 과제물을 작성함에 있어서 어떤 논문이나 저서 및 기타 자료를 참고로 하였을 때는 그것을 밝히는 것이 원칙이며 학도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예의이다. 따라서 과제물의 결론 다음에 참고문헌을 넣어 주도록 하며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 논문일때 : i)필자명, ii)논문제목, iii)발표된 책명, iv)권수, v)호수, vi)발행지, vii)발행년도, viii)페이지 순으로 쓴다.

㉡ 저서일때 : i)저자명, ii)책명, iii)발행지, iv)출판사, v)발행연도, vi)페이지로 쓰며, vii)빼기도 한다.

제8장 기타 유의사항

(1) 목차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가?

목차는 반드시 있어야 하나 문제의 성격에 따라 그렇지 않을 수 도 있다.(어학, 수치과목은 목차가 필요없음). 목차를 설정할 경우 서론 · 본론 · 결론만 간단하게 쓰지 말고 최소한 본론에서는 소목차가 포함되도록 해서 평가자(채점자)가 목차만 보아도 과제물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해야 한다.

▶ 목차구성형식의 보기

1.	제1편	I .
가	제1장	A.
(1)	제1절	1.
(가)	제1항	a.
①	제1목	(1)
②	제2목	(2)
(나)	제2항	b
(2)	제2절	2
나.	제2장	B
2.	제2편	II

▶ 목차 작성의 예 : 이익집단의 기능을 설명하고 한국이익집단의 특성을 설명하라.

I. 서론 : 이익집단의 의의	1page
II. 이익집단의 기능	2page
1. 정치체제와 이익집단/2	
2. 정책과정과 이익집단/2	
III. 한국 이익집단의 특징	3page
IV. 결론	4page

※ 참고문헌

목차에 쓰는 참고문헌은 구체적으로 기입하지 않고, 결론 뒷부분에 상세히 기입한다.

(2) 참고문헌의 표시는?

많은 책을 참고하여 참고문헌을 나열하기보다는 교재 하나라도 정확히 이해하고 과제물을 쓰기 바란다. 경험을 통하여 볼 때 해당 내용이라도 숙지하고 과제물을 작성하여 낸 학생은 전체의 10%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점을 특히 명심하여 하나라도 완전히 이해하고 작성에 임하기 바란다.

▶ 참고문헌 적는 법

A. 단행본의 경우

윤선철	「정치학개론」	1995	서울 : 도서출판 버리
↓	↓	↓	↓
㉠지은이이름	㉡책이름(「」안에 표기)	㉢출판년도	㉣출판지명 : 출판사명

※ 편저자가 있는 경우 ㉠과 ㉡사이에 넣으면 출판지명은 없어도 무방하다.

B. 논문집의 경우

김한동, “5,6세 아동의 식생활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연구논총」, 33, 197~203				
↓				
㉠글쓴이 ㉡논문제목(“ ”안에 표기) ㉢논문집이름 ㉣권수/호수 ↓				
				㉤참고한 페이지

(3) 소제목은?

반드시 소제목을 달기 바람, 소제목이 없다면 같은 내용의 보고서라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 맨 앞에 소제목 목차를 표시한다.

(4) 각주를 꼭 붙여야 하는가?

각주는 붙이면 좋으나, 출제가가 그런 수준까지 기대하지 않는다. 내용도 잘 모르면서 과시용으로 각주를 붙일 필요는 없다.

(5) 한자를 사용하여야 하는가?

대학생이라면 기본적인 한자의 사용은 필수이다. 과제물 작성시 한글을 사용하여 어의(語義)를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반드시 한자를 사용해 주기 바란다. 또한 주요개념이나 용어 등은 한자로 표기하는 것이 좋다.

(6) PC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는가?

보기 좋은 음식이 먹기도 좋더라는 속담이 있듯이 깨끗이 정리된 리포트는 채점자에게 호감을 주게 된다. 과제물 작성에 있어서 PC작성이 원칙은 아니지만 채점자의 입장에서 보면 같은 글이라도 인쇄된 것이 눈에 빨리 들어오고 능률을 올릴 수 있어 이런 것을 선호하게 된다. 가능하다면 PC로 작성하여 제출하기 바람, PC사용이 어려울 경우 깨끗이 정서하여 제출하기 바람

(7) 시중에 나와 있는 자료를 참고하면 0점 처리 되는가?

과제물 작성의 첫째 요건은 독창성이다. 출제가의 의도가 잘 반영된 독창적인 글은 채점자에게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남이 쓴 자료를 그대로 베끼거나 적당히 짜깁기 해서 제출하면 감점을 받게 된다. 즉, 모범답안을 참고로 할 수 있지만 그대로 복필하지 말

라는 것이다. 좋은 과제물은 많은 참고문헌을 보고 이를 토대로 하여 쓴 글이다.